

고등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 성별과 학교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

유 흥 준* · 김 월 화**

1. 문제제기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더 이상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전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다¹⁾. 아울러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68세가 되어서야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국민일보, 2004년 11월 29일)는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직업을 결정하는가? 장래 직업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라고 한다(황정규 외, 1989; 윤수진, 2002: 25에서 재인용).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진로 및 직업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시기에 있어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및 유학을 포함한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취업이나 창업 등과 같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에서의 진로지도 역시 이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진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자들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또 다른 완충기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바로 직업생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일반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실업계 고교생의 70%가 진학을 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대한상공회의소가 20-30대 남녀 직장인 및 대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직업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성에 맞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응답이 61.4%를 차지했고, 높은 보수와 복리후생이라는 응답은 30.4%였다(edaily, 2004년 12월 14일).

전히 실업계 학생의 30%는 취업을 하고 있으며²⁾,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실업계 학생들의 고용이라 할 때, 이들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서울, 대구, 대전에서만 작년(2004년)보다 증가하였을 뿐, 그 외 13개 시도에서는 작년에 비해 79.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42.0%와 49.8%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겨레, 2005년 9월 11일), 실제로 상당수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가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05년 9월 11일).

실업계의 위기라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와 직업훈련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일반계(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인문고나 상업고, 공업고 등 어느 하나의 계열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업계 내에서도 그 세부적인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진로교육이나 직업훈련이 보다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현황과 그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식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진로 선택에 대한 능력은 중소도시 중학생들이 대도시 중학생들보다, 대도시 중학생들이 농촌지역 학생들보다 더 성숙하였다는 연구결과(안효경, 1997)에서 보듯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진로지도 및 그에 따른 결과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1) 진로지도의 개념

진로 지도(career guidance)는 산업 혁명 이후 일과 직업의 세계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프랭크 파슨스(Frank Parsons)가 1908년 ‘시민 봉사회 프로그램(Civic Service House Program)’의 일환으로 보스턴에 직업국(Vocation Bureau of Boston)을 설립함으로써 진로 지도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유니세프(UNICEF)의 지원을 받아 1982년부터 진로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장석민, 1993: 5).

진로지도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테일러(Taylor, 1972)는 진로지도란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2) 2004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총 182,835명 중 32.9%에 해당하는 60,062명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연보, 2004).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라 하였으며, 베일리(Bailey, 1973)는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직업에 들어가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 하였다. 김재설(1967: 7)은 진로지도를 개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그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홍기형과 이승우(1976: 18-20)는 진로지도를 전문화된 서비스로 상담활동을 포함한 개념이며, 직업교육이 그 핵심이라 하였다. 이정근(1980: 17)은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며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김충기(1995: 81)는 학생들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진학 및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적응·발전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하였다. 박창기(2001: 8)는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이해하여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전개될 미지의 세계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진로를 계획, 선택하여 졸업 후 바람직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도·조언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강재태 외(2003: 13)는 진로지도는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를 포함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진로를 준비시키고, 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된 직업에서 적응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진로지도의 핵심은 학생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인식, 탐색,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선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장래에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해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2: 3).

진로지도의 기본 원리와 방향(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2: 7-9)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생들의 진로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알맞게 재구조화되고 재편성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직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도로 강화되어야 한다.
- ④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자원인사를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⑤ 진학 및 직업적 요소를 중요시 하지만 단편적인 직업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⑥ 일의 세계를 폭넓게 인식시키는 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과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⑦ 자아의 이해를 위한 준비로서 자기이해, 자기결정, 자기지도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계획성있는 과업이어야 한다.
- ⑧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신념에 기초를 둔 자기결정에의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⑨ 학교장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전체 교육 속에 중핵적인 요소로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 별로 능력 수준에 맞게 이해하도록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진로지도의 필요성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무근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보제공이나 개인의 필요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과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장석민은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배경은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이해라는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무근(1993)은 “① 산업 사회에서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가정이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요청된다. ③ 산업 발전에 따라 산업 인력 구조가 계속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와 변화에 적응하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④ 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능력과 일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⑤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제도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직업교육에서 자신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선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⑥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로 정리하였다.

장석민(1993)은 개인적 측면과 국가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한 뒤, 개인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및 목적을 “① 적성과 능력을 포함한 자아 특성의 발견과 계발 ②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③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 및 태도 육성 ④ 진로선택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 제고 ⑤ 능동적 진로 개척 능력과 태도의 육성”으로 그리고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및 목적을 “① 다양한 인력의 균형된 개발 유도 ② 과열 과외 및 재수생 문제 완화 ③ 무직 청소년 비행화의 예방 ④ 건전한 사회적 직업 윤리관 확립 ⑤ 국민 전체의 직업 생산성 제고”로 정리하였다.

한편 배경은(2004)은 “①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태도 등을 바르게 이해한다. ② 인간관계기술을 익히고 배운다. ③ 과학적,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 진로를 결정한다. ④ 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⑤ 인간의 조작적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기초기능을 기른다. ⑥ 직업과 일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한다. ⑦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 ⑧ 교육과 일의 세계가 밀접하게 관계되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하였다.

3) 진로지도의 목적

진로지도의 목적에 대해 이정근(1992: 17-19)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장대운 외(1996)는 자아개념의 구체화, 일의 세

계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고취, 의사결정능력 함양, 협동적인 사회행동 습득, 일에 대한 태도의 함양을 진로지도의 목표로 보았으며, 김봉환 외(2001)는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의 증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의 증진,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강재태 외(2003: 11)는 진로지도는 개인이 자아실현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을 꾀하고 있으며, 전인교육과 생애교육을 지향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신장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가속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3. 연구설계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도에 전국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0명과 이들 학생의 가구, 담임, 교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차년도 자료이다. 이 중 본 연구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4,000명을 분석하였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계열과 지역규모에 따라 진로지도와 그 결과적 측면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계열은 일반계와 실업계 그리고 보다 세분화된 계열인 과학/예술/일반고, 종합-일반고, 종합-실업고, 공업고, 상업/실업고, 농림/해양고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지역규모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군/구/동’은 ‘중도시’, ‘읍/면’은 ‘소도시’로 구분하였다.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여러 학자의 논의가 있는데,³⁾ 본 연구자들은 ‘진

3) 진로지도와 연관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충기(1987: 112)는 진로교육을 진로지도와 취업지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생의 전체 학습과정으로서 직업적성교육 또는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강재태 외(2003: 13)는 진로지도는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를 포함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진로를 준비시키고, 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된 직업에서 적응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하여 진로지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봉환(2000:1-2)은 진로교육, 직업교육, 진로지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우선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총칭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란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형식 또는 비형식적 교육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진로지도(career guidance)’란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ing), 진학상담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애동안 그들

로지도'를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진로지도라는 보다 포괄적인 큰 틀에서 교육이 진로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직업에 관한 것인가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 수강, 강연, 상담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진로교육'과 직업과 관련되어 자신이 실제로 직업체험을 하거나 훈련을 받는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에는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진로상담이 속하며, 직업교육에는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직업 훈련을 받고 있거나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가 속한다.

직업의식의 경우, 도구적 직업관과 자아실현 직업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귀하는 직업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②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③ 자아실현을 위하여 ④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라는 4개의 응답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②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③ 자아실현을 위하여’는 자아실현직업관으로 ‘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④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도구적 직업관으로 범주화하였다⁴⁾.

이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문항

		문항	
진로지도 ⁵⁾	진로교육	q44.1.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q44.2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q44.3	학교 및 학과 안내
		q44.4	진로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q44.6	진로상담
	직업교육	q44.5	직업체험
		q41-4	현재 직업 훈련을 받고 있거나
		q41-5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진로지도의 결과적 측면	q35.	현재 취득한 자격증 여부	
	q43	적성인지	
	q36.	미래의 직업 결정 여부	
	q36-2	미래 결정 직업에 대한 정보	
		1) 업무내용(하는 일) 및 근무 환경	
		2) 전망 및 보수	
직업의식	q53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의 진로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자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이 여러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로서 진로계획, 의사결정, 적응문제 등에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재태 외, 2003: 13-14에서 재인용).

4)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일자체가 좋아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는 경우에는 자아실현적 직업관으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위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얻기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구적 직업관으로 구분하였다(윤수진, 2002: 30).

5) 해당 변수들이 이분형 변수이므로 요인분석을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참고로 요인분석을 수행

4.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전체 4,000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이 2,222명(55.6%)이며 여학생은 1,778명(44.5%)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44명(11.1%) 많다. 학교유형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이 각각 2,000명씩이며,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학생은 일반고가 50.3%(1117명), 실업고가 49.7%(1105명)이며 여학생은 일반고가 49.7%(883명), 실업고가 50.3%(895명)으로 성별 내에서 일반고와 실업고의 비율은 비슷하다. 세부적인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과학/예술/일반고와 공업고, 농림/해양고의 57.0%, 86.0%, 66.3%가 남학생으로 이들 학교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은 반면, 종합-일반고, 종합-실업고, 상업/실업고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는 특별/광역시의 대도시가 43.0%(1,720명), 시군구동의 중도시가 33.0%(1,320명)이며 읍이나 면의 소도시가 24.0%(960명)로 나타났다.

학교단위로 보면 일반고 100개교와 실업고 100개교의 전체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도시 소재 학교 86개교(43%), 중도시 소재 학교 66개교(33.0%), 소도시 소재 학교 48개교(24%)이다. 세부적인 학교유형별로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일반계의 경우 과학/예술/일반고의 50%이상이 대도시에 위치하는 반면, 종합-일반고는 85%이상이 읍/면의 소도시에 위치하였다. 실업계의 경우, 종합-실업고는 66.7%가 중도시에 위치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공업고는 대도시에 48.8%, 중도시에 29.3%, 소도시에 22.2% 위치하며 상업/실업고는 대도시와 소도시에 37.3%, 중도시에 25.6%가 위치하였다. 농림/해양고는 대도시와 중도시에 각각 50%씩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과학/예술/일반고는 대도시에 기타 다른 학교들은 중소도시에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분	
	1	2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경험	.534	.243
진로관련 강연 경험	.625	-.183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647	.019
진로관련 검사 경험	.603	-.376
진로상담 경험	.484	-.270
직업체험 경험	.262	.732
현재나 미래 직업훈련 여부	.332	.41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 %)

	전체	일반계		실업계		
		과학/예술/일반고	종합-일반고	종합-실업고	공업고	상업고
학생						
전체	4,000 (100)	1,860 (100)	140 (100)	240 (100)	820 (100)	860 (100)
성별						
남자	2,222 (55.6)	1,060 (57.0)	57 (40.7)	86 (35.8)	705 (86.0)	260 (30.2)
여자	1,778 (44.5)	800 (43.0)	83 (59.3)	154 (64.2)	115 (14.0)	590 (69.8)
학교유형						
일반계	2,000 (50.0)	1,860 (100)	140 (100)	0 (.0)	0 (.0)	0 (0)
실업계	2,000 (50.0)	0 (.0)	0 (.0)	240 (100)	820 (100)	860 (100)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1,720 (43.0)	960 (51.6)	0 (.0)	0 (.0)	400 (48.8)	320 (37.2)
시군구동	1,320 (33.0)	640 (34.4)	20 (14.3)	160 (66.7)	240 (29.3)	220 (25.6)
읍/면	960 (24.0)	260 (14.0)	120 (85.7)	80 (33.3)	180 (22.0)	320 (37.2)
학교						
전체	200 (100)	93 (100)	7 (100)	12 (100)	41 (100)	47 (100)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86 (43.0)	48 (51.6)	0 (.0)	0 (.0)	20 (48.8)	16 (36.2)
시군구동	66 (33.0)	32 (34.4)	1 (14.3)	8 (66.7)	12 (29.3)	11 (23.4)
읍/면	48 (24.0)	13 (14.0)	6 (85.7)	4 (33.3)	9 (22.0)	20 (42.6)

*p<0.10 *p<0.05 **p<0.01 ***p<0.001

학교자료는 교무 data

2) 성별 및 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표 3>은 진로지도 즉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있는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있어 일반고와 실업고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지도 중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진로상담 등은 ‘진로교육’으로,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은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를 보면,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진로관련 강연과 학교 및 학과 안내는 남녀 모두 40%나 50% 내외로 차이가 없었다. 진로관련검사는 남학생의 74.3%, 여학생의 81.2%가 받았다고 대답하여 전체적으로 검사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진로검사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진로상담을 받은 비율도 남학생이 48.2%, 여학생이 56.4%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직업교육에 있어서 직업체험은 남학생의 12.4%와 여학생의 9.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그 비율이 모두 10% 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도 남학생의 52.8%와 여학생의 42.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험 비율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관련검사나 진로상담과 같은 진로교육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비율이 높은 반면,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체험의 직업교육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약간 높았다.

일반계와 실업계 간의 차이를 보면,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에 대해 일반계 남학생의 49.7%와 실업계 남학생의 32.2% 그리고 일반계 여학생의 43.0%와 실업계 여학생의 37.7%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실업계 학생보다 일반계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이수한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의 과학/예술/일반고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교과를 들은 비율이 50%로 높았으며 종합고, 공업고, 상업/실업고의 실업계 학생들은 그 비율이 30.2%, 33.9%, 25.3%로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농림/해양고가 63.0%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예술/일반고가 44.3%로 높은 편이며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30%대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강연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계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 > 0.10$). 세부적인 계열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계 농림/해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56.6%와 44.4%로 가장 높은 반면, 일반계-종합고 학생들이 24.6%와 27.7%로 가장 낮았다.

학교 및 학과 안내의 경우도 남학생은 실업계가 여학생은 일반계가 약간 높았으나 계열이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 > 0.10$). 세부적으로는 농림/해양고에 다니는 남학생의 54.7%, 여학생이 84.4%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 종합고에 다니는 학생이 28.1%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p < 0.05$),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 실업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40.9%로 다른 고등학교 여학생들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p > 0.10$).

〈표 3〉 성별 및 학교유형에 따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N, %)

	전체	x ²	일반계	실업계	x ²	일반계				실업계				x ²
						일반고	중합고	중합고	종합고	공업고	상업/실업고	농림/해양		
합계(N)	남	2,222 (100)	1,117 (100)	1,105 (100)		1,060 (100)	57 (100)	86 (100)	705 (100)	261 (100)	53 (100)			
	여	1,778 (100)	883 (100)	895 (100)		800 (100)	83 (100)	154 (100)	115 (100)	599 (100)	27 (100)			
진로와 직업 이수(1=예)	남	911 (41.0)	555 (49.7)	336 (32.2)	70.081 ***	532 (50.2)	23 (40.4)	26 (30.2)	239 (33.9)	66 (25.3)	25 (47.2)	83.291 ***		
	여	713 (40.3)	380 (43.0)	337 (37.7)	5.349 *	354 (44.3)	26 (31.3)	60 (39.0)	37 (32.2)	223 (37.2)	17 (63.0)	19.346 **		
진로관련 강연(1=예)	남	864 (38.9)	421 (37.7)	443 (40.1)	1.347	407 (38.4)	14 (24.6)	33 (38.4)	293 (41.6)	87 (33.3)	30 (56.6)	17.547 **		
	여	689 (38.8)	334 (37.8)	355 (39.7)	0.633	311 (38.9)	23 (27.7)	61 (39.6)	46 (40.0)	236 (39.4)	12 (44.4)	4.866		
학교 및 학과 안내 (1=예)	남	1,090 (49.1)	546 (48.9)	544 (49.2)	0.027	530 (50.0)	16 (28.1)	36 (41.9)	349 (49.5)	130 (49.8)	29 (54.7)	13.000 *		
	여	869 (48.9)	444 (50.3)	425 (47.5)	1.392	401 (50.1)	43 (51.8)	63 (40.9)	60 (52.2)	230 (48.4)	12 (84.4)	5.461		
진로관련 검사(1=예)	남	1,650 (74.3)	914 (81.8)	736 (66.6)	67.314 ***	869 (82.0)	45 (78.9)	47 (54.7)	479 (67.9)	174 (66.7)	36 (67.9)	74.713 ***		
	여	1,444 (81.2)	760 (86.1)	684 (76.4)	27.106 ***	686 (85.8)	74 (89.2)	117 (76.0)	85 (73.9)	462 (77.1)	20 (74.1)	28.466 ***		
진로상담 (1=예)	남	1,070 (48.2)	558 (50.0)	512 (46.3)	2.916	523 (49.3)	35 (61.4)	27 (31.4)	323 (45.8)	129 (49.4)	33 (62.3)	20.219 **		
	여	1,003 (56.4)	532 (60.2)	471 (52.7)	10.340 **	477 (59.6)	55 (66.3)	83 (53.9)	57 (50.0)	318 (53.1)	13 (48.1)	12.380 **		
직업체험 (1=예)	남	275 (12.4)	84 (7.5)	191 (17.3)	48.843 ***	79 (7.5)	5 (8.8)	11 (12.8)	109 (15.5)	55 (21.1)	16 (30.2)	64.285 ***		
	여	174 (9.8)	44 (5.0)	130 (14.5)	45.841 ***	36 (4.5)	8 (9.6)	16 (10.4)	15 (13.0)	92 (15.4)	7 (25.9)	55.806 ***		
직업훈련 (1=예)	남	102 (52.8)	11 (64.7)	91 (51.7)	1.052	8 (57.1)	3 (100)	7 (43.8)	66 (54.5)	13 (56.5)	5 (31.3)	6.571		
	여	133 (42.9)	6 (42.9)	127 (42.9)	0.000	4 (33.3)	2 (100)	18 (36.7)	12 (41.4)	95 (44.4)	2 (50.0)	4.175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각 간의 N(%)는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예를 들어,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에 대해 남학생의 2,222명(100%) 중 911명(41.0%)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N(%)는 표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1,778명(100%) 중 713명(40.3%)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주 2) 직업훈련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임.

진로관련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계 남학생의 81.8%, 실업계 남학생의 66.6%와 일반계 여학생의 86.1%, 실업계 여학생의 76.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검사비율이 높았으나, 실업계 학생보다 일반계 학생들의 진로관련 검사비율이 15%내지 20% 이상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 종합고에서도 일반계 남학생의 비율은 78.9%인데 반해 실업계 남학생은 54.7%이며 일반계 여학생은 89.2%, 실업계 여학생은 76.0%로 나타나 같은 종합고라 하여도 실업계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해 진로관련 검사율이 낮았다.

진로상담 역시 일반계 남학생의 50.0%, 실업계 남학생의 46.3%와 일반계 여학생의 60.2%, 실업계 여학생의 52.7%가 받았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실업계보다 일반계에서 진로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고-일반계 남학생은 61.4%가 진로상담을 받는데 비해 종합고-실업계 남학생은 31.4%에 불과하여 종합고-실업계 남학생의 진로상담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 중 직업체험은 남학생이 12.4%, 여학생이 9.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고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은 17.3%, 여학생은 14.5%에 불과하여 실업계 학생이라 하여도 직업체험 비율은 5명 중 1명도 안되었다. 세부적인 학교 유형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농림/해양고에서 직업체험율이 30.2와 25.9%로 높았으며 다음이 상업실업고가 21.1%, 15.4%로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학생 중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추후 받을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계 남학생이 64.7%로 실업계 남학생의 51.7%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0.10$).

<표 4>는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졸업 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함으로써 바로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계열 별 졸업 후 계획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84.5%와 여학생의 80.4%가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유학을 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 5명중 4명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의 8.7%와 여학생의 17.4%가 졸업 직후 계획을 취업 또는 창업이라 응답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직업을 갖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계열에 따라 졸업 후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계 남학생의 95.3%와 일반계 여학생의 97.9%가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실업계의 경우 남학생의 73.5%와 여학생의 63.2%가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실제로 높은 실업고 출신 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실업계 남학생이 실업계 여학생에 비해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세부적인 학교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농림/해양고 학생의 30%가 직업을 갖겠다고 응답하여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반면 상업/실업고의 8.8%만이 직업을 갖겠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낮았다.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농림/해양고 학생들의 81.5%가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단지 14.8%만이 직장을 갖겠다고 응답한 반면 종합고-실업계와 상업/실업고 학생들의 31.8%와 35.7%가 직업을 갖겠다고 응답하여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다른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상업/실업고 남학생과 농림/해양고 여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에서 언급한 진로지도의 결과적 측면으로 우선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비율이 약간 높았다($p < 0.10$). 일반계와 실업계를 비교해 보면, 일반계 남학생의 26.2%, 실업계 남학생의 46.4%와 일반계 여학생의 22.5%, 실업계 여학생의 55.2%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일반계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의 자격증 소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상업/실업고에서 자격증 취득 비율이 5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실업고는 43% 내외였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종합고 일반계의 자격증 취득 비율도 40.4%로 종합고 실업계의 44.2%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업실업고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60.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종합고 실업계로 52.6%였다.

적성인지 여부는 일반계 남학생의 69.9%, 실업계 남학생의 58.7%와 일반계 여학생의 71.6%, 실업계 여학생의 57.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고보다 일반고에서 자신의 적성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특히 공업고(56.0%)에서, 여학생은 실업계 종합고(55.8%)와 상업/실업고(56.1%)에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 적성인지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직업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63.1%와 여학생의 70.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미래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계열별로는 일반계 남학생의 69.7%와 실업계 남학생의 56.4% 그리고 일반계 여학생의 75.2%와 실업계 여학생의 65.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계에 비해 일반계에 다니는 학생이 미래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인 학교 유형별로는 남학생은 일반고와 농림해양고 학생이 70%이상으로 높은 반면, 종합고 일반계와 공업고, 상업/실업고의 경우에는 약 55%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공업고 학생의 미래직업 결정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은 반면, 농림/해양고 학생들의 48.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신이 미래에 정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정보 즉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과 '전망 및 보수'에 대해 좀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 직업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학교 유형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종합-일반고와 종합-실업고의 직업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비율이 낮아 종합고에 대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표 4〉 학교유형에 따른 진로지도 결과 (N, % / M)

	전체	x ² / t	일반계	실업계	x ² / t	실업계				x ² / F		
						일반고	종합고	중합고	공업고		상업/실업고	농림/해양
합계(N)	남	2,222 (100)	1,117 (100)	1,105 (100)		1,060 (100)	57 (100)	86 (100)	705 (100)	261 (100)	53 (100)	
	여	1,778 (100)	883 (100)	895 (100)		800 (100)	83 (100)	154 (100)	115 (100)	599 (100)	27 (100)	
졸업 후 계획	남	1,877 (84.5)	1,065 (95.3)	812 (73.5)	209.270 ***	1014 (95.7)	51 (89.5)	61 (70.9)	509 (72.2)	211 (80.8)	31 (58.5)	243.809 ***
	여	188 (8.7)	17 (1.5)	176 (15.9)		14 (1.3)	3 (5.3)	16 (18.6)	121 (17.2)	23 (8.8)	16 (30.2)	
자격을	남	1,429 (80.4)	863 (97.7)	566 (63.2)	336.883 ***	782 (97.8)	81 (97.6)	99 (64.3)	84 (73.0)	361 (60.3)	22 (81.5)	354.374 ***
	여	310 (17.4)	14 (1.6)	296 (33.1)		12 (1.5)	2 (2.4)	49 (31.8)	29 (25.2)	214 (35.7)	4 (14.8)	
직성인지 여부	남	806 (36.3)	293 (26.2)	513 (46.4)	97.999 ***	270 (25.5)	23 (40.4)	38 (44.2)	298 (42.3)	154 (59.0)	23 (43.4)	126.708 ***
	여	693 (39.0)	199 (22.5)	494 (55.2)	199.320 ***	169 (21.1)	30 (36.1)	81 (52.6)	42 (36.5)	363 (60.6)	8 (29.6)	238.528 ***
미래직업 결정여부	남	1,430 (64.4)	781 (69.9)	649 (58.7)	30.303 ***	744 (70.2)	37 (64.9)	55 (64.0)	395 (56.0)	164 (62.8)	35 (66.0)	37.377 ***
	여	1,149 (64.6)	632 (71.6)	517 (57.8)	37.073 ***	572 (71.5)	60 (72.3)	86 (55.8)	79 (68.7)	336 (56.1)	16 (59.3)	44.111 ***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	남	1,402 (63.1)	779 (69.7)	623 (56.4)	45.582 ***	748 (70.6)	31 (54.4)	56 (65.1)	381 (54.0)	146 (55.9)	40 (75.5)	61.455 ***
	여	1,252 (70.4)	664 (75.2)	588 (65.7)	19.256 ***	608 (76.0)	56 (67.5)	100 (64.9)	91 (79.1)	384 (64.1)	13 (48.1)	36.606 ***
업무,환경	남	3.34	3.36	3.31	1.064	3.37	3.16	3.04	3.35	3.31	3.30	1.962 *
	여	3.33	3.40	3.25	3.261 **	3.39	3.43	3.19	3.30	3.26	3.23	2.336 *
전망,보수	남	3.29	3.40	3.17	4.878 ***	3.40	3.23	3.13	3.18	3.12	3.25	5.187 ***
	여	3.21	3.28	3.14	3.054 **	3.28	3.25	3.21	3.03	3.15	3.08	2.357 *
직업정보	남	3.32	3.38	3.24	3.409 **	3.39	3.19	3.08	3.27	3.22	3.28	3.349 **
	여	3.27	3.34	3.20	3.541 ***	3.34	3.34	3.20	3.17	3.20	3.15	2.556 *
자아실현 직업관	남	540 (24.3)	330 (29.6)	210 (19.0)	33.546 ***	311 (29.4)	19 (33.3)	9 (10.5)	140 (19.9)	54 (20.8)	7 (13.2)	39.101 ***
	여	638 (35.9)	375 (42.5)	263 (29.4)	33.070 ***	339 (42.4)	36 (43.4)	52 (33.8)	30 (26.1)	178 (29.7)	3 (11.1)	38.878 ***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는 미래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

주 2)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 즉 '업무, 환경' '전망, 보수'의 응답범주는 '1 전혀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이며, 직업정보는 '('업무, 환경'+전망, 보수)/2'의 값이다.

주 3) 자아실현 직업관의 남학생의 N은 2,220(2명 missing)이며, 전체 100%에서 '자아실현 직업관의 %'를 뺀 값이 '도구적 직업관의 %'임.

주 4) 졸업후 계획 - 기타('군입대, 결혼'과 '무보수 가업 도음') 표기 안 함

한편 학생들의 직업관을 도구적 직업관과 자아실현 직업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표에서는 자아실현 직업관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24.3%와 여학생의 35.9%가 자아실현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체로 자아실현 직업관에 비해 도구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아실현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계에 비해 일반계 학생들이 자아실현적 직업관의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 종합고 실업계 남학생의 자아실현 직업관이 10.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고 남학생의 비율이 13.2%로 뒤를 이었다. 즉 이들은 10명 중 9명은 도구적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농림/해양고 학생의 11.1%만이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공업고 여학생으로 26.1%가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고 미래의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실업계와 일반계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계 학생의 경우에는 추후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공선택에 있어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고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실업계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취업이나 창업과 같이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갖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직업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 이에 따라 자신의 적성 인지 및 직업결정 여부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가 일반계에 비해서도 낮으며 직업선택에 있어 불확실선상에서 출발하는 비율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3) 지역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표 5>는 성별과 지역규모에 따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진로지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진로교육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도시나 소도시에 비해 중도시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율이 48.1%와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모두 일반계의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진로와 직업」 과목의 이수율이 높으며 특히 지역에 따른 계열간 차이는 대도시가 11.8%, 중도시는 21.6%, 소도시는 23.6%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⁶⁾ 여학생의 경우도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 「진로와 직업」 과목을 이수한 비율이 높았다.

진로관련 강연 여부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으며 소도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역 내 계열 간 차이가 일반계-대도시와 실업계-대도시는 44.1%와 43.9% 그리고 일반계-소도시와 실업계-소도시는 29.4%와 27.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계열 내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일반계-대도시와 일반계-소도시는 44.1%와

6) 대도시: 일반계 44.4% > 실업계 32.6%(차=11.8%), 중도시: 일반계 59.1% > 실업계 37.5%(차=21.6%), 소도시: 일반계 47.3% > 실업계 23.7%(차=23.6%).

29.4% 그리고 실업계 -대도시와 실업계-소도시는 43.9%와 27.9%로서 그 차이가 14.7%와 1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진로관련 강연은 계열간 차이보다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과 안내 여부는 일반계 남학생과 실업계 남학생 그리고 실업계 여학생 모두 중도시에서 가장 높고 소도시에서 가장 낮으며 일반계 여학생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고 소도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소도시에서의 학교 및 학과 안내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0.10$).

진로관련 검사는 지역규모에 따라 남학생은 대도시 80.0%, 중도시 70.8%, 소도시 67.5%, 여학생은 84.7%, 83.7%, 73.1%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클수록 진로관련 검사 비율이 높았다.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살펴봐도 대도시에서의 검사비율이 가장 높으며 소도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계열내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며 지역내 계열간에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일반계 87.7%와 대도시-실업계 71.7%, 중도시-일반계 76.9%와 중도시-실업계 64.9%, 소도시-일반계 75.5%와 소도시-실업계 60.7%로 그 차이는 16.0%, 12.0%, 14.8%로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학생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중도시는 지역 내 계열간 차이--대도시내 일반계 87.2%, 실업계 81.1%이며 중도시 내 일반계 66.4%, 실업계 57.5%-- 6% 정도로 크지 않으나 소지역의 경우에는 13.2%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을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는 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계는 소도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규모 내에서 일반계와 실업계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 내 일반계 남학생은 46.8%, 실업계 남학생은 48.6%이며 일반계 여학생은 53.6%와 실업계 여학생은 56.8%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계 남학생이 59.5%와 실업계 남학생이 42.8%이며 일반계 여학생은 66.3%와 실업계 여학생은 44.7%로 그 차이가 16.7%와 21.6%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을 살펴보자. 먼저 직업체험을 보면, 전체로 보았을 때는 소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15% 이하로 직업체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도시, 중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실업계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다($p>0.10$).

직업훈련 이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0.10$). 실업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도시에서의 직업훈련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직업훈련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직업체험을 제외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모두 대도시나 중도시 학생들이 많이 받은 반면 소도시 학생들이 가장 낮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의 경우 모든 항목에 있어 소도시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같은 지역내에서의 인문계와 실업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대도시나 중도시 내에서의 일반계와 실업계간 차이보다 소도시 내에서의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규모에 따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N, %)

	전체	x ²	특별/광역시			x ²	일반계			x ²	실업계			
			시군구동읍/면	읍/면	x ²		특별/광역시	시군구동읍/면	x ²		특별/광역시	시군구동읍/면	x ²	
합계(N)			1,013 (100)	732 (100)	477 (100)		538 (100)	359 (100)	220 (100)		475 (100)	373 (100)	257 (100)	
	남	2,222 (100)	707 (100)	588 (100)	483 (100)		422 (100)	301 (100)	160 (100)		285 (100)	287 (100)	322 (100)	
진로와 직업 이수	남	911 (41.0)	394 (38.9)	352 (48.1)	165 (34.6)	25.156 ***	239 (44.4)	212 (59.1)	104 (47.3)	19.072 ***	155 (32.6)	140 (37.5)	61 (23.7)	13.331 **
	여	713 (40.3)	240 (33.9)	301 (51.2)	176 (36.4)	43.832 ***	151 (35.8)	167 (55.5)	62 (38.8)	29.276 ***	89 (31.2)	134 (46.7)	114 (35.3)	15.761 ***
진로 관련 강연	남	864 (38.9)	414 (40.9)	271 (37.0)	179 (37.5)	3.117	209 (38.8)	128 (35.7)	84 (38.2)	0.963	205 (43.2)	143 (38.3)	95 (37.0)	3.383
	여	689 (38.8)	311 (44.0)	241 (41.0)	137 (28.4)	31.364 ***	186 (44.1)	101 (33.6)	47 (29.4)	14.203 **	125 (43.9)	140 (48.8)	90 (27.9)	30.857 ***
학교 및 학과 안내	남	1,090 (49.1)	491 (48.5)	375 (51.2)	224 (47.0)	2.361	260 (48.3)	182 (50.7)	104 (47.3)	0.767	231 (48.6)	193 (51.7)	120 (46.7)	1.672
	여	869 (48.9)	357 (50.5)	296 (50.3)	216 (44.7)	4.584	216 (51.2)	151 (50.2)	77 (48.1)	0.437	141 (49.5)	145 (50.5)	139 (43.0)	4.080
진로 관련 검사	남	1,650 (74.3)	810 (80.0)	518 (70.8)	322 (67.5)	33.283 ***	472 (87.7)	276 (76.9)	166 (75.5)	24.532 ***	338 (71.2)	242 (64.9)	156 (60.7)	8.955 *
	여	1,444 (81.2)	599 (84.7)	492 (83.7)	353 (73.1)	28.962 ***	368 (87.2)	261 (86.7)	131 (81.9)	2.904	231 (81.1)	231 (80.5)	222 (68.7)	16.630 ***
진로 상담	남	1,070 (48.2)	483 (47.7)	346 (47.3)	241 (50.5)	1.395	252 (46.8)	175 (48.7)	131 (59.5)	10.392 **	231 (48.6)	171 (45.8)	110 (42.8)	2.334
	여	1,003 (56.4)	388 (54.9)	365 (62.1)	250 (51.9)	12.394 ***	226 (53.6)	200 (66.4)	106 (66.3)	15.128 **	162 (56.8)	165 (57.5)	144 (44.7)	12.829 **
직업 체험	남	275 (12.4)	126 (12.4)	77 (10.5)	72 (15.1)	5.581 *	39 (7.2)	17 (4.7)	28 (12.7)	16.637 **	87 (18.3)	60 (16.1)	44 (17.1)	0.733
	여	174 (9.8)	71 (10.0)	48 (8.2)	55 (11.4)	3.209	25 (5.9)	7 (2.3)	12 (7.5)	7.420 *	46 (16.1)	41 (14.3)	43 (13.3)	0.995
직업 훈련*	남	102 (52.8)	45 (62.5)	28 (45.9)	29 (48.3)	4.364	0 (0)	7 (70.0)	4 (80.0)	4.302	45 (64.3)	21 (41.2)	25 (45.5)	7.561 *
	여	133 (42.9)	42 (50.6)	34 (40.0)	57 (40.1)	2.743	1 (50.0)	4 (50.0)	1 (25.0)	0.729	41 (50.6)	30 (39.0)	56 (40.6)	2.760

+ p<0.10 * p<0.05 ** p<0.01 *** p<0.001

아래의 <표 6>은 지역규모에 따라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것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격증 취득 정도가 낮고 적성인지와 미래 직업 결정여부가 낮지만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알고 있으며 도구적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졸업 후 계획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지역규모가 클수록 진학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으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직업을 가지려는 비율이 높았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일반계의 경우에는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남학생은 90% 이상이, 여학생은 95% 이상이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대도시와 중도시는 약 75% 소도시는 68%가 여학생은 대도시와 중도시는 약 70%, 소도시는 52%가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읍/면지역에서 직업을 가지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43%가 직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도시 실업계 여학생들에 대한 보다 세심함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결과적 측면들을 살펴보자. 자격증 취득 여부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3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소도시로 37.3%이며 대도시가 33.2%로 가장 낮는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도시가 4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도시로 42.2%이며 대도시가 33.1%로 가장 낮았다.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 남학생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29.0%로 가장 높는데 반해($p>0.05$),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5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소도시로 48.2%이며, 대도시가 37.9%로 가장 낮았다($p<0.001$). 일반계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비율이 20% 전반대로 실업계나 남학생들에 비해 낮았다. 실업계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비율이 50%가 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적성인지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도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도시 여학생들의 인지율이 55.5%로 가장 낮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같은 지역규모 내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 적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⁷⁾ 특히 주목할 점은 실업계 소도시 여학생의 경우에 48.9% 만이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같은 소도시내 일반계 여학생의 68.8%에 비해 20%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래 직업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높으며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계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남학생 - 대도시: 일반계 72.9% > 실업계 59.6%, 중도시: 일반계 66.0% > 실업계 59.8%, 소도시: 일반계 69.1% > 실업계 55.6%.

여학생 - 대도시: 일반계 73.2% > 실업계 62.5%, 중도시: 일반계 70.8% > 실업계 63.1%, 소도시: 일반계 68.8% > 실업계 48.9%.

〈표 6〉 지역규모에 따른 진로지도 결과 (N, % / M)

	전체			일반계			실업계		
	특별/ 광역시	시군구동 읍/면	x ² / t	특별/ 광역시	시군구동 읍/면	x ² / F	특별/ 광역시	시군구동 읍/면	x ² / F
합계(N)	남	2,222 (100)		538 (100)	359 (100)	220 (100)	475 (100)	373 (100)	257 (100)
	여	1,778 (100)		422 (100)	301 (100)	160 (100)	285 (100)	287 (100)	322 (100)
졸업 후 계획	남	1,877 (84.5)	106.809***	526 (97.8)	337 (93.9)	202 (91.8)	354 (74.5)	283 (75.9)	175 (68.1)
	여	193 (8.7)		2 (0.4)	10 (2.8)	5 (2.3)	70 (14.7)	51 (13.7)	55 (21.4)
	남	1,429 (80.4)		416 (98.6)	292 (97.0)	155 (96.9)	196 (68.8)	201 (70.0)	169 (52.3)
	여	310 (17.4)		2 (0.5)	8 (2.7)	4 (2.5)	81 (28.4)	77 (26.8)	138 (42.7)
자격증	남	806 (36.3)	3.079 ⁺	156 (29.0)	83 (23.1)	54 (24.5)	180 (37.9)	209 (56.0)	124 (48.2)
	여	693 (39.0)		89 (21.1)	74 (24.6)	36 (22.5)	145 (50.9)	174 (60.6)	175 (54.2)
직성인지 여부	남	1,430 (64.4)	0.031	392 (72.9)	237 (66.0)	152 (69.1)	283 (59.6)	223 (59.8)	143 (55.6)
	여	1,149 (64.6)		309 (73.2)	213 (70.8)	110 (68.8)	178 (62.5)	181 (63.1)	158 (48.9)
미래직업 결정	남	1,402 (63.1)	23.703***	387 (71.9)	241 (67.1)	151 (68.6)	272 (57.3)	207 (55.5)	144 (56.0)
	여	1,252 (70.4)		322 (76.3)	225 (74.8)	117 (73.1)	201 (70.5)	189 (65.9)	198 (61.3)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									
업무,환경	남	3.34	0.281	3.45	3.32	3.20	3.34	3.29	3.28
	여	3.33		3.43	3.36	3.37	3.30	3.38	3.09
진망,보수	남	3.29	2.404 [*]	3.49	3.36	3.21	3.16	3.23	3.09
	여	3.21		3.34	3.23	3.21	3.20	3.22	2.99
직업정보	남	3.32	1.541	3.47	3.34	3.21	3.25	3.26	3.19
	여	3.27		3.39	3.30	3.29	3.25	3.30	3.04
차아실현 직업관	남	540 (24.3)	63.467***	167 (31.1)	104 (29.0)	59 (26.8)	102 (21.5)	57 (15.3)	51 (19.9)
	여	638 (35.9)		193 (45.7)	124 (41.2)	58 (36.3)	78 (27.4)	72 (25.1)	113 (35.0)

+ p<0.10 * p<0.05 ** p<0.01 *** p<0.001

미래 직업을 결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도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의 경우에는 남학생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대도시가 가장 높고 소도시가 가장 낮은 반면, 실업계는 여학생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중도시에서 가장 높고 소도시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계와 실업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소도시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을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아실현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학생들의 자아실현 직업의식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소도시, 중도시의 순이다. 계열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도시가 31.1%와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중도시로 29.0%와 41.2%이며, 소도시가 26.8%와 36.3%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p>0.10$). 반면 실업고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대도시가 21.5%로 가장 높고 소도시가 19.9%이며 중도시가 15.3%로 가장 낮는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도시가 35.0%, 대도시가 27.4%, 중도시가 25.1%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성별과 학교유형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관련 검사와 진로상담의 진로교육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보다 많이 받은 반면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의 직업교육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보다 많이 받았다.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 자격증 취득과 미래 직업결정 여부는 여학생이 높았으며 자아실현 직업관도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보면,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진로관련검사, 진로상담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업계에 비해 인문계가 높은 반면, 직업체험은 실업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 비율은 실업계가 높았지만 적성인지 여부나 미래직업 결정 여부 그리고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는 일반계가 높았으며 자아실현직업관 역시 일반계에서 높게 나타났다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직업체험을 제외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모두 대도시나 중도시 학생들이 많이 받은 반면 소도시 학생들이 가장 낮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의 경우 모든 항목에 있어 소도시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같은 지역내

8)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진로교육만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하여도 진로지도에 따라 직업의식이 형성됨은 부정할 수 없다.

에서의 인문계와 실업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대도시나 중도시 내에서의 일반계와 실업계간 차이보다 소도시 내에서의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 자격증 소지여부는 중소도시가 높은 반면 적성인지여부나 미래직업에 대한 결정여부 및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계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대도시에서의 자격증 취득비율이나 적성인지여부, 미래직업 결정 여부 및 직업에 대한 정보가 높다. 적성인지 여부와 미래직업 결정여부에 대해 남학생은 중도시가 가장 낮은 반면 여학생은 소도시가 가장 낮다. 실업계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도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여부나 적성인지여부가 높으며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취득 여부는 대도시가 가장 취약하지만 그외 적성이나 미래 직업에 대한 결정여부 및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는 소도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도시 실업계 여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열별 차이를 볼 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이 더 잘 이뤄지는 반면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더욱 절실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인문계와 실업계간의 차이는 소도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도시 실업계 여학생 중 42.7%는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은 미약하며,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수준이나 미래의 직업에 대해 결정하고 있는 비율이 낮으며 직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가 미약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도시 실업계 여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공편). 2004. 『교육통계연보』.
- 강재태·배종훈·강대구, 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봉환. 2000. “진로상담의 개요.” 아동·청소년 상담연구회. 제8회 추계 교육연수 Workshop 자료집(진로상담).
- 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1.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재설. 1967. 『진로지도 해설』. 법문사.
- 김충기. 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 _____.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박창기. 2001.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은. 2004. “상업계고등학교와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지도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2. 『중·고등학교 진로지도의 계획과 실천-진로지도 기간 설정 운영 중심』. 교단지원자료 '92-10. 진로교육자료 제12호.
- 안효경. 1997. “부모의 사회계층 및 거주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차이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진. 2002.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근. 1993.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이정근. 1980, 1992.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사.
- 장대운·김충기·박경애·김진희. 1996. 『청소년 진로상담』. (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장석민. 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제1장. 진로 지도의 개념.” 『(중등 학교 교사용) 진로 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교단지원자료 '93-6. 진로교육자료 제16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자료.
- 홍기형·이승우. 1976.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 황정규 외. 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국민일보. 2004년 11월 29일.
- 매일경제신문. 2005년 9월 11일.
- edaily. 2004년 12월 14일
- 한겨레. 2005년 9월 11일.

Bailey, Larry J. and Stadt, Ronald. 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II: McNight Publishing Co.

Taylor, Robert E. 1972. *Career Education: Implication for Increased Educational Relevancy*. Paper Presented at the Central New York School Study Council Career Education Conference.